

主奴關係型 奴婢談의 類型과 意味

정 준 식*

차 례

- | | |
|--------------------------------|----------------------------------|
| 1. 서론 | 2.2. 역노형,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과 그
향방 |
| 2. 주노관계형 노비담의 유형과 의미 | 2.3. 공존형, 관념적 시각과 경험적 시각
의 접점 |
| 2.1. 충노형, 지배이데올로기로의 정도
와 일탈 | 3. 결론 |

1. 서론

노비는 전근대 사회의 산물로서, 반드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가 인정되던 특수한 부류의 천민집단이다. 주지하듯, 전근대 사회에 존재한 다양한 형태의 지배관계 중에서도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가장 극단적인 '지배-복종'의 형태를 보여왔다. 중세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주인의 일방적인 통제 하에서 절대 충성만을 강요받았던 바, 이러한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는 시대에 따라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신분제가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와 같은 지배관계가 항상 안정을 담보한 채 주인의 일방적

* 부산대 국문과 강사

인 힘의 우위로만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인을 중심으로 섬긴 모범적인 노비가 존재한 이면에는 때때로 반란을 주도하거나 개별 혹은 집단으로 도망 및 隱漏를 꾀한 노비도 있었고, 심한 경우 주인을 살해하면서까지 신분해방을 위해 분투한 노비들도 있었다.¹⁾ 신분사적 관점에서 볼 때,奴婢制가 생겨난 이래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 신분해방을 위해 투쟁한 노비들의 기나긴 역정을 ‘노비 신분 해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바,²⁾ 그것은 궁극적으로 근대를 향한, 역사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필연적 대응이었다. 奴婢談도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주인과 노비 중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학에서 노비를 본격적으로 다룬 예는 흔치 않다. 그 때문에 노비를 형상화한 문학에 대한 논의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³⁾ 이는 사학계 일각에서 이룩한 노비 관련 연구성과⁴⁾와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노비를 다룬 문학은 야담, 전, 소설 등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비교적 노비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야담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노비를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야담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노비담 중에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망 속에서 진행되

1) 신분해방을 위한 노비의 투쟁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홍승기, 『고려귀족사회와 노비』(일조각, 1983) ; 이정신,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 등을 참조.

2)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191~198쪽.

3) 노비담에 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推奴談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명기, 『奴·主의 어울림과 맞섬』,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 김석배, 『추노계 한문단편 연구』, 『문학과 언어』 제7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 김정석,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분대립 고찰』, 『계명어문학』 제5집, 계명어문학회, 1990 ;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조선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세종출판사, 1995 ; 이종목, 『남하정의 <임석동전>과 충노전의 전통』,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下)』, 집문당, 1998 ; 정준식,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4)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업적을 들 수 있다. 명목실,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2 ;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 역사학회 편, 『노비·농노·노예』, 일조각, 1998.

는 이야기'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유형과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노비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주노관계형 노비담의 유형과 의미

노비를 다룬 이야기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의 각종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논의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비담을 보면 주인과 노비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와 노비 단독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공존하면서 두 유형의 기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主奴關係型'으로, 노비 단독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奴婢單獨型'으로 지칭할 수 있다. '주노관계형'은 기본적으로 주인과 노비를 함께 설정하여 주인에 대한 노비의 태도나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을 통해 주노관계의 다양한 양상과 노비의 인물형상을 분명하게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노비단독형'은 주인을 배제하고 노비를 온전한 개체로 다루어 그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형상화한 유형이다. 이 유형을 통해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노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본고에서는 '주노관계형'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노비단독형'에 관해서는 후속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노관계형 노비담에는 노비의 인물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구분할 때는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노비의 태도와 행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노비의 태도여하에 따라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을 취할 때 주노관계형 노비담에 나타난 노비의 인물형상은 '忠奴型', '逆奴型', '共存型'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셋은 노비의 형상일 뿐 아니라 노비담의 하위 유형이기도 하다. 노비가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도 거기에 맞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충노형'은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노비는 '지배-피지배'의 봉건적 지배구조를 운명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奴主之分을 어기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역노형'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한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노비는 신분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공존형'은 忠奴와 逆奴를 함께 설정하여 이들의

행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에서는 忠奴의 행위가 긍정되고 逆奴의 행위는 철저히 부정된다. 이하 이들 세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주노관계의 다양한 양상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1. 충노형, 지배이데올로기로의 정도와 일탈

충노형은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충노형에 등장하는 노비는 주인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주인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거나, 주인을 의리로써 섬기거나 주인을 경제적으로 돕는 등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와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노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이야기와 주인을 경제적으로 도운 이야기는 노비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삶과 그들의 능력 발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朝官姓吳者>, <高得宗奴>, <權可述奴>, <金禮奉>, <具壽永奴>, <尹良>, <貴家奴>, <許生奴>, <訥催의 奴>, <愛男>, <一升僕> 등은⁵⁾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이다. <朝官姓吳者>는 주인 吳氏가 賊犯으로 감옥에 갇히자 그의 노복이 부인 복장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주인을 내보내고 자기가 대신 갇혔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나 세종이 그 종을 의롭게 여겨 赦免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세종 때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으로 실록에도 그 기록이 올라 있다.⁶⁾ 실록의 경우, 奴가 주인을 대신해 감옥에 갇힘으로써 獄吏를 속여 주인의 脫走를 도운 것은 <朝官姓吳者>의 그것과 같지만, 구체적인 탈주의 경위가 다르며 세종이 그 종을 용서해 주었다는 기록도 없다. 사면 부분은 서거정이 덧보탠 것일 터, 의로운 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강조한 이 부분은 모범

5) <朝官姓吳者>는 《필원잡기》에, <高得宗奴>는 《용재총화》에, <權可述奴>, <尹良>은 《어우야담》에, <具壽永奴>는 《기재잡기》에, <金禮奉>은 《대동기문》에, <貴家奴>는 《태평한화》에, <許生奴>는 《백야기문》에, <訥催의 奴>는 《삼국사기》에, 《愛男》은 《변암집》에, <一升僕>은 《계서야담》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6) 실록에 의하면 주인은 당시 內資寺尹으로 있던 吳明義이며 賊罪를 범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그는 문종조에 재산분배로 擊弟와 다투다가 捕告되었으나 赦令이 있어 석방되었다.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8월 기사조 및 『문종실록』 권12, 문종 2년 5월 신축조 참조.

적인 노비가 그만큼 많이 나와주기를 갈망하는 《필원잡기》 편자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읽혀진다.

<高得宗奴>, <權可述奴>는 바다를 건너던 중 배가 파손되어 다른 사람은 모두 죽고 주인과 노비만 판자에 몸을 의지한 극한상황에서, 노비가 주인을 위해 잡고 있던 판자를 놓음으로써 주인을 살려냈다는 내용이다. 두 작품의 상황 설정 방식과 사건구성 방식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용재총화》의 <高得宗奴>가 《어우야담》의 <權可述奴>에 變容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노비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을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그와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한 노비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부각함으로써 노비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대치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具壽永奴>, <尹良>, <金禮奉>, <貴家奴>, <許生奴> 등도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을 노비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살려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訥催의 奴>, <一升僕>, <愛男>은 전쟁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주인을 구한 노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訥催의 奴>는 신라의 장군 訥催가 백제와의 싸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노복이 주인을 도와 끝까지 싸우다가 주인과 함께 장렬히 죽었다는 내용이며, <一升僕>은 평소 쌀 한 되를 먹던 김여물의 노복이 임진왜란 때 자원해서 주인을 따라가 모시다가 주인이 죽자 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고도 그 시신을 수습해 先塋에 安葬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愛男>은 임진왜란 때 蒙塵하던 선조 일행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임진강을 건너지 못해 근심하고 있을 때, 李光庭의 노복 愛男이 초가집에 불을 질러 길을 흰히 밝힘으로써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세 이야기는 전쟁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충을 실천한 노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실 미천한 신분의 노비가 국가적 위기를 맞아 충성을 다한 사례는 임병양란 이후 傳으로도 다수 창작된바, 作傳者는 전란의 와중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사대부들의 윤리적 해이를 질타하기 위해 忠奴傳을 입전한 것이다.?)

7) 충노전에 관해서는 이종묵, 『남하정의 <임석동전>과 충노전의 전통』, 『한국 고

이상과 같이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는 특정 상황에서 행한 노비의 특이한 행적을 부각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사건이 매우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서사성도 부족하여 이야기 자체의 흥미가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충을 실천한 노비의 사례는 主奴關係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주노관계는 군신관계와 같아서 노비는 주인에게 절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조 사대부들이 마련해놓은 주노관계의 이데올로기였다.⁸⁾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노비는 한결같이 그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忠奴의 전형을 보인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모범적인 노비의 사례로 다루어 기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忠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뜻한다.

<柳灌의 婢>, <鄭蘊과 어느 계집중>, <忠僕 萬石> 등은⁹⁾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이다. <柳灌의 婢>는 乙巳士禍로 柳灌(1484~1545)이 賜死되고 그의 婢 甲이 鄭順命(1484~1548)에게 몰수되었는데,¹⁰⁾ 甲이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疫疾로 죽은 사람의 팔을 구해 鄭順命의 베개 속에 넣음으로써 疫疾에 걸려 죽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여러 야담집에 수록될 정도로¹¹⁾ 을사사화 이후 忠婢의 사례로 널리 전승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鄭蘊과 어느 계집중>은 어느 계집중이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가던 鄭蘊에게 부탁하여 주인을 살해한 안주인의 姦夫를 죽여 원수를 갚고 정운을 따라가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 야담집에 수용되어 다양한 변이를 겪을 정도로 忠婢의 사례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¹²⁾ <忠僕 萬石>은 실제 사건에 토대를 둔 이야기로 실록에도 그 기록이 올라 있

전소설과 서사문학(하)』(집문당, 1998)을 참조.

8)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288~294쪽.

9) <柳灌의 婢>는 《지봉유설》에, <鄭蘊과 어느 계집중>, <忠僕 萬石>은 《기문총화》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10) 다른 야담집에는 '甲'이 '甲伊'로, '鄭順命'이 '鄭順朋'으로 나와 있다.

11) 이 이야기는 여러 야담집에 수용되면서 甲의 주인과 복수의 대상자가 '유관-정순봉', '유인숙-정순봉', '유인숙-이기'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고 내용상의 차이도 보인다.

12) 특히 《청구야담》에는 정운이 임형수로 바뀌어 있고, 姦夫도 사대부에서 증으로 바뀌어 있다.

다.13) 만석은 박씨 부인이 시집을 때 데려온 종이다. 박씨의 남편이 일찍 죽자 이웃 양반 金祖述이 박씨의 미모를 탐해 박씨와 사통했다며 헛소문을 낸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박씨가官에 알렸으나 金祖述의 뇌물을 받은 관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자 박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결하게 된다. 그 후로 4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만석이 상경하여 바라를 침으로써, 마침내 金祖述의 죄상을 밝히고 처벌하게 되었다. 실사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는 별다른 편차를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야담집에 수록되어 忠僕의 사례로 널리 膾炙된 점 앞의 <유관의 비>, <정은과 어느 계집종>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충노형 중에서도 비교적 서사성이 높고 사건의 세부 정황을 寫實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서 흥미와 교훈의 자료로 널리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柳灌의婢>의 말미에는 “천한 계집으로서 씩씩한 장부의 마음을 가졌으니 실로 공경할 만하다”라는 평이 붙어 있다. 신분제의 이완으로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도망하는 노비가 급증하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사대부들에게 수용되어 널리 膾炙된 사실을 통해 忠奴를 갈망하는 사대부들의 기대치와 조선후기 현실과의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有成>, <潘碩桴>, <劉克良>, <朴彥立> 등은¹⁴⁾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이야기이다. 이들은 奴主之分에 입각하여 주인을 의리로 섬기면서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당당하고도 자신만만한 노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노비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도 앞의 작품들에 비해 매우 진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반석평>은 실존 인물 반석평의 생애에 토대를 둔 이야기로서,¹⁵⁾ 노비가 신분제의 장벽을 극복하고 고급관료로 立身할 수도 있었

13)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11월 신유조, “命烈女朴氏旌閭 朴氏以士族孀婦 爲本部人金祖述所誣逼 自裁潔身 而凶徒翻亂 獄情三年未得決 其奴萬石 飲泣屢籲 始得暴白 令禮曹稟處 萬石以忠奴 生前給復 死後旌閭”

14) <有成>은 <송도기이>에, <潘碩桴>은 <어우야담>에, <劉克良>은 <연려실기술>에, <朴彥立>은 <학산한언>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15) 潘碩桴은 중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公文, 호는 松崖, 시호는 壯節, 본관은 光州이다. 중종 2년(150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이 되었으며,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형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성품이 온건하고 겸허하며, 청렴하고 근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그는 賤擊出身이었는데 그

음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사례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有成>은 송도의 천민 유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성은 도망한 婢의 아들로 서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도망노비라는 사실을 알고는 곧 바로 주인댁을 찾아가 그 동안 밀린 賁物을 바치고 안주인을 정성껏 섬겼다. 안주인이 유성의 충심에 감복하여 임종시에 면천문서를 만들어 주어 주었으나, 유성은 그것을 볼사르고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 후 삼년상을 모시고 죽을 때까지 主人家에 충성을 다했다. 이 작품의 서두에는 고을 원이 부역 나온 유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軍簿에서 除名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유성>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신분적 장벽을 제거해준 사대부의 진전된 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潘頌桴>은 宰相家の 노복 반석평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석평은 재상의 배려로 글공부를 한 후에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합격하여 팔도 관찰사를 두루 지내고 2품에 이르렀다. 나중에 재상이 죽고 그 자식들이 가난하게 되어 걸어서 다녔는데, 반석평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말에서 내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탄로되자 국왕에게 사실을 실토하고 삭탈관직을 청했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장하게 여겨 높은 벼슬을 내렸으며 재상의 자식에게도 벼슬을 내려 주었다. 이 작품 또한 능력 있는 노비에게 길을 열어 준 사대부의 진전된 의식이 돋보이며,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주인을 의리로 섬긴 노비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도 매우 이채롭다. 특히 이 작품은 실사에 토대를 둔 이야기로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도 입신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劉克良> 또한 宰相家の 노복 유극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구성이 <반석평>과 매우 유사하다. 유극량은 어렸을 때 옥슬잔을 깨뜨리고 벌이 무서워 도망한 婢의 아들인데, 과거에 급제해 장수가 된 다음 어머니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자 주인집을 찾아가 급제를 취소하고 다시 종이 되기를 요구했다. 주인집에서는 그를 가상히 여겨 해방시켜 주었으나 유극량은 그것을 거부하고

의 조모가 그의 학문적 재능을 알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몰래 서울로 데려가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공부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2월 정유조.

끝까지 상전을 의리로써 섬겼다. 이 이야기를 유극량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도망노비가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것이 되겠지만, 유극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향상되었음에도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충노답이라 할 수 있다. <朴彦立>은 이시백 妻家の 노복 박언립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품 속의 박언립은 평소 성질이 사나워 주인 말을 잘 듣지 않았으나, 상전이 병으로 죽자 장사로 막대한 富를 이루고 이시백을 천거하여 주인 딸과 혼인시켰으며, 癸亥反正 당시 이귀, 김류 등에게 계책을 알려주어 성공하게 만든 인물이다. 이 작품은 다른 충노답에 비해 내용이 꽤 긴 편이며, 여러 야담집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변이를 심하게 겪기도 했다.¹⁶⁾ <박언립>은 전체적으로 장례삽화, 致富삽화, 혼인삽화, 反正삽화 등 네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박언립은 주인의 장례를 치르고 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인의 딸을 이시백과 혼인시키고 인조반정의 계책을 마련하는 일에서 줄곧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 따라 서사의 전개도 철저히 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난실만필》 소재 <박언립>의 말미에는 편자의 논평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편자는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奴僕 박언립이 아까운 능력을 썩힌 일을 애석해 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잘못된 인재등용제도 때문이라며 통탄하고 있다.¹⁷⁾ 이를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노비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이고 진전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이야기에는 한결같이 노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으며, 당당하게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노비의 모습이 작품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충노답에 형상화된 노비는 사대부의 계급이테올로기에 포섭되어 자기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기 일췌인데, 이들 작품의 노비는 그렇지 않다. 유성·반석평·유극량·박언립이 자신들의 신분적·경제적 처지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을 섬긴 것은 기존 신분관계로의 복귀가 아닌, 가진 자의 여유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

1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준식,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29집(한국문화회, 2001.12)을 참조.

17) 정준식, 앞의 논문, 16~19쪽.

인에 대한 노비의 세계관적 우위를 뜻하며, 노비의 경제적 처지의 상승에 따른 전통적 신분관계의 무력화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⁸⁾ 조선후기 노비의 신분해방이 궁극적으로 노비의 경제적 성장과 노비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 전환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유성>, <반석평>, <유극량>, <박언립> 등은 조선후기의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金義童>, <義婢享福> 등은¹⁹⁾ 주인을 경제적으로 도운 이야기이다. 이들 작품의 노비는 주인 몰래 도망하여 신분상승과 함께富를 획득한 후에 옛 주인에게 돈을 많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도망을 했다는 점에서는 逆奴로 규정될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주인에게 대항하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忠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金義童>의 경우 申氏의 노복이었던 金義童이 19세에 도망하여 綠林黨의 두목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신씨의 노복 業山을 만나 비단 50필을 주어 보냄으로써 주인 신씨를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작품 속의 金義童은 막대한富를 바탕으로 많은 부하와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고급 관료를 방불케 하는 위엄 있는 행차모습도 찍이나 인상적이다. 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金義童의 형상은 뒤에서 다루게 될 <宋班窮途遇舊僕>의 노복 莫同과 함께 노비의 신분상승을 위한 열망과 그 실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은 주인에게 忠을 실천하면서도 신분적 굴레를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노비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金義童>은 이야기의 성격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전승되던 義賊談의 틀을 빌려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義婢享福>도 노비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 속의 婢는主人的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안주인이 몰래 내보낸 자였기 때문에 여타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망노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

18) 외저노비의 경제적 처지의 상승이 신분계의 이완 및 해체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89)를 참조.

19) <金義童>은 <어우야담>에, <義婢享福>은 <어수신화>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다. 婢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어떤 선비를 만나 양반의 딸이라 속이고 함께 살았는데, 뒷날 婢의 남편과 자식 세 명은 모두 名宦이 되었다. 婢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자신이 도망한 노비임을 밝혔는데, 이를 몰래 엿들은 도둑이 婢의 주인을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贖錢을 받으면 자신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주인은 도둑과 함께 婢의 집으로 향하다가 도둑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혼자서 婢를 찾아갔으며, 婢를 남매의 예로 예우해준 代價로 재상이 된 婢의 아들로부터 벼슬과 돈을 얻어 富와 名譽가 一道의 으뜸이 되었다. 이처럼 이 작품 또한 앞의 <金義童>과 마찬가지로 몰락한 주인이 오로지 노비의 도움으로 경제적 안정을 되찾게 된 점과 함께 노비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신하게 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金義童>, <義婢享福>을 통해 우리는 주인과 노비의 경제적 처지가 역전된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身分觀念' 대신 '富'가 새로운 가치 개념으로 자리잡았음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몰락양반들이 전통적 신분관념에 사로잡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궁핍화의 길을 걸었던 반면, 현실대응력이 뛰어난 도망노비들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상승을 도모해갔던 것이 조선후기의 역사적 진실이었다. <金義童>, <義婢享福>은 조선후기의 그 같은 사회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有成>, <潘碩枰>, <劉克良>, <朴彦立> 등에 대해 노비를 온전한 개체로 형상화한 진전된 이야기라 평한 바 있거니와 <金義童>, <義婢享福>은 거기에 더하여 노비가 주인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분적 한계마저 극복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할 만하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사대부적 계급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노비가 자아의 각성을 통해 점차로 신분해방을 이루어간 사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2. 역노형,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과 그 항방

역노형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家內奴婢의 謀叛에 관한 이야기와 推奴를 둘러싼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가내노비의 모반에 관한 이야기는 주인집 딸과 主人家의 재산을 탐낸 家奴의 횡포를 다룬 이야기로서 노비의 신분해방에 대한 욕망보

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행을 자행하는 노비의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비해 推奴를 둘러싼 이야기는 주인이 도망노비를 推刷하는 과정에서 벌이게 되는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이야기로서 노비의 신분해방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張備郎>, <嶺南士人>, <金德齡>, <俞應孚>, <李森> 등은²⁰⁾ 家內奴婢의 謀叛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 작품의 경우 노비가 주인 가족을 살해하고 마지막 남은 주인의 딸과 勒婚하여 主人家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비가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팽팽한 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서 叛奴가 橫叛하여 주인 가족을 모두 살해하면서도 유독 처녀만을 살려 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叛奴가 모반하게 된 배경에는 주인집 처녀와의 勒婚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주인의 재산을 차지함으로써 경제적 富를 이루겠다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橫叛은 도망이란 방법을 통해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던 推奴談의 노비들보다 명분이 약하고 지향점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는 한결같이 주인 딸을 대신해 叛奴를 처치하는 인물로 過客이 등장하고 있다. <김덕령>에서 김덕령은 주인을 대신하여 叛奴와 치열한 대결을 펼쳐나가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강원도로 사냥을 가서 호랑이를 추격하다가 실패하고 날이 저물자 하룻밤 유숙하기 위해 변고가 일어난 바로 그 집에 찾아드는 모습으로 등장한다.²¹⁾ 그리고 이러한 상황 설정은 다른 작품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嶺南士人>에서는 膂力過人한 김선비가 科擧를 위해 上京하던 중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한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叛奴에 의해 변고가 일어난 집이다.²²⁾ <張備郎>에서는 絶倫過人한 張備郎이 얼마 후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한 노인의 말을 듣고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 강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집에 유숙하게 되며 주인집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변고가 있음을 안다.²³⁾ 여기서 변고라는 것은 노비

20) <張備郎>은 《동야휘집》에, <嶺南士人>은 《기문총화》에, <金德齡>은 《파수록》에, <俞應孚>는 《양은천미》에, <李森>은 《계암만록》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21)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2, 보고서, 1992, 468쪽.

2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7, 1987, 12~13쪽.

가 주인의 딸만 남기고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주인의 딸로부터 殺主事件의 전말을 전해들은 과객은 주인을 대신하여 叛奴와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작품에서의 主奴葛藤은 사실상 과객의 勇力談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이런 관계로, 이들 작품이 표면상으로는 '주인↔노비↔과객'이라는 중층적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인은 사실상 노비에게 대항할 현실적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노비↔과객'의 대결구도로 표면화된다. 특히 <兪應孚>에서는 叛奴들이 집단으로 주인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과객과 叛奴의 대결이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노비의 橫叛은 어떤 경우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결은 결국 과객의 승리로 귀결된다. 나아가 이들 작품은 叛奴를 징치하는 부분을 과장되게 서술함으로써 복수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이미 서두에서 伏線으로 제시된 '膂力過人', '射藝絕倫'한 과객의 勇力을 증명한다는 의미와 함께 殺主奴婢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대부의 교화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⁴⁾

한편, 이들 작품에는 한결같이 叛奴에 대한 복수가 달성되고 난 뒤의 후일담이 추가되어 있다. <嶺南士人>, <金德齡>, <兪應孚>, <李森>은 과객(영남선비, 김덕령, 유응부, 이삼)이 자신의 첩이 되겠다는 주인의 딸을 다른 곳에出嫁 시킴으로써 끝까지 男妹의 義를 유지하게 된 결말을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勇力을 갖춘 과객의 義氣를 끝까지 미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張備郎>은 재상의 繼室이 된 주인의 딸이 우연히 과객(장비랑)을 만나 報恩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즉, 복수가 마무리되고 과객이 떠난 다음 주인집 딸은 某宰相의 繼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자기를 대신해 원수를 갚아준 과객의 은혜를 한 시도 잊지 못해 수심에 찬 나날을 보내던 중 승진을 위해 재상을 찾아온 과객이 지난날의 그 일을 재상에게 들려주게 되며, 주인의 딸이 이를 알고 재상에

23) 정명기 편, 『원본 동아휘집』, 보고사, 1992, 90~91쪽.

24) <老宰下帑禮舊主>의 말미에 첩부된 평결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奴主之分 與君臣父子之倫一體 而悖奴之包藏匈圖 卽覆載之所難容 萬副猶輕”, 정명기 편, 『원본 동아휘집(하)』, 보고사, 1992, 94쪽.

게 부탁하여 그의 벼슬을 올려줌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앞의 작품들이 勇力談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張備郎>은 전형적인 보은담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가네노비의 모반에 관한 이야기는 주인을 살해한 叛奴에게 주인이 아닌 과객이 복수를 실현하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 과객이 주인공으로 부상됨으로써 전반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主奴葛藤이 과객의 勇力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例話로 전락하거나 報恩談이라는 보다 큰 서사맥락 속에 갇혀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때문에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노비의 橫叛은 그저 명분 없이 자행된 惡奴의 행위로 간주되어 준엄한 처벌이 뒤따를 뿐, 그 행위가 정당화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는 곧 이 이야기들을 서술한 사대부의 세계관적 한계로 지적되어야 마땅할 터, 이러한 세계관적 한계로 인해 노비가 橫叛하게 된 현실적 배경이 은폐된 것은 물론 노비가 온전한 주체로 형상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고 만 것이다.

<金德齡>, <具聖淵>, <免禍>, <劫舊主叛奴受刑>, <丹巖閔公>, <京城一措大>, <洪宇遠>, <古者有趙判書>, <金英娘用智嫁貴門>, <修簡免死>, <趙泰億>, <洪家寡婦>, <宋班窮途遇舊僕> 등은²⁵⁾ 조선 후기 도처에서 광범하게 진행된 노비의 도망과 이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推刷라는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한 이야기이다. 推奴談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이야기에는 신분해방을 위한 노비의 저항과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주인의 의지가 팽팽히 맞서 있어서 양자간의 첨예한 대립·갈등이 서사전개의 중심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하 몇몇 이야기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金德齡>, <具聖淵>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이 도망노비를 추쇄하려 갔다가 집단으로 저항하는 叛奴들에게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勇力으로 직접 반노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옴으로써 推奴에 성공하는

25) <金德齡>은 <동패락송>에, <禮安人具聖淵>, <丹巖閔公>은 <박소촌화>에, <免禍>는 <난실만필>에, <劫舊主叛奴受刑>, <宋班窮途遇舊僕>은 <청구야담>에, <京城一措大>는 <계암만록>에, <洪宇遠>은 <쇄어>에, <古者有趙判書>는 <선언편>에, <金英娘用智嫁貴門>은 <양은천미>에, <修簡免死>는 <기문>에, <趙泰億>은 <삼교만록>에, <洪家寡婦>는 <어수신화>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이야기이다. <김덕령>은 처가의 노비를 推刷하러 간 김덕령이 노비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했지만 뛰어난 勇力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身貢을 거두어 무사히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구성연>도 <김덕령>과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이처럼 이들 이야기는 ‘주인이 뛰어난 勇力으로 어떻게 叛奴들을 처단하는가’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다. 그런데 주인의 勇力을 너무 과장되게 부각한 결과 애써 마련한 主-奴의 팽팽한 대결구도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요컨대 이 작품들은 신분해방을 위한 노비들의 열망과 그 실현을 다루기보다 비범한 능력을 갖춘 인물들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서사에 내재된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은폐하거나 빚겨간 셈이 되고 말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동요에 대한 사대부들의 우려가 어느 수준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기존 신분질서를 고수하려는 그들의 대응에 의해 노비의 신분해방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免禍>, <劫舊主叛奴受刑>, <趙泰億>, <洪家寡婦> 등은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推奴를 나간 주인이 叛奴들에게 일방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機智를 발휘하여 목숨을 구하고 官의 도움으로 叛奴들을 처단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免禍>의 경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분질서가 혼란했던 18세기 당시의 사정이 짧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고려시대에 가장 엄해서 이름이 賤籍에 올라있는 자는 평민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법이 고려시대만큼 엄하지는 않았으나, 벼슬을 하여 관리가 되지 못했고 良民과 賤民이 서로 혼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비 중에서 富豪하고 强盛한 자는 백방으로 종적을 감추려 했으며, 심지어 그 주인을 살해하는 자도 있었다. 근세 이래로 法網이 해이해져 良賤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 버렸지만, 내가 듣기로 100여년 전만 해도 가난한 양반이 노비를 推刷하러 갔다가 홑들 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²⁶⁾

26) 《蘭室漫筆》 제2화, “我國奴婢之法 在麗時極嚴 名在賤籍者 不得與平民齒 至本朝 其法之嚴 雖不如麗代 而亦不得仕宦爲吏 良賤不得相婚嫁 以此 奴婢之富豪而族黨强盛者 百計隱漏 至有殺害其主者 近世以來 法網解弛 至于今日 則良賤之界限 幾蕩然矣 余聞百餘年前 貧弊士夫爲推奴而遭害者 比比也”(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2, 320쪽).

위의 인용은 노비의 도망 및 그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推刷가 빈번했던 18세기 당시의 현실에 대한 《蘭室漫筆》 편자의 인식과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사실 추쇄를 나간 주인이 도망노비에게 욕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은 조선시대에 빈번히 발생했으며,²⁷⁾ 추쇄를 둘러싼 비리와 폐단이 속출하자 국가가 私奴婢의 추쇄에 적극 관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기도 했다.²⁸⁾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도망노비를 추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경우 노비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주인은 官의 威勢를 빌려서라도 추쇄를 단행했던 바,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이를 稱念이라 불렀다.²⁹⁾ 이렇게 볼 때, 官威를 빌려 추쇄에 성공한다는 이들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주인이 어떤 機智를 써서 死地에서 살아왔느냐'라는 문제로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앞의 <김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빗겨가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주인이 피살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다. 즉 <免禍>에서 <修簡免死>까지는 수령이나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徽欵'이라는 암호를 써 보냄으로써, <趙泰億>은 전혀 모르는 監司에게 斥呼姓名함으로써, <洪家寡婦>는 망명죄인 黃鎮基를 假稱함으로써 각각 피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처럼 주인이 노비에게 피살될 위기를 모면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만큼 이미 사회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주인은 오로지 옛 신분만을 고집할 뿐 노비의 신분해방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앞서다보니 官의 힘을 빌려 叛奴들을 일거에 처단하는 무리한 결말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余嘗見人推得遐方>, <栢谷金公> 등은³⁰⁾ 한 작품 안에 뚜렷이 대조되는 두

27)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347~349쪽.

28)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192~198쪽.

29) 조선후기의 문헌에 종종 발견되는 稱念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주인이 자신의 노비를 完護할 목적으로 자기노비가 거주하는 各官의 守衛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노비 통제 능력을 상실한 주인이 收貢이나 推刷을 위해 官의 힘을 빌려달라고 청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승중, 위의 책, 313~316쪽.

30) <余嘗見人推得遐方>은 《박소촌화》에, <栢谷 金公>은 《매옹한록》에 수록되어 있다.

삽화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데, <栢谷金公>을 통해 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매옹한록》의 편자인 朴亮漢이 延豐의 선비 柳雲瑞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처결한 推奴事件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栢谷 金得臣의 외거노비 중에 巨富가 있었는데, 金得臣이 늙은 후 그의 아들이 노비의 納價贖良을 허락해 주자 巨富가 아들을 贖良하기 위해 말에다 면포 수백 필을 싣고 찾아왔다. 김득신은 아들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는 자신이 품소 일을 처리하면서 찾아온 노복에게 면포 14필만 받고 그 아들을 속량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후자의 경우는 朴亮漢이 泰仁의 수령으로 있을 때 한 양반이 노비 세 사람을 속량해 주면서 일인당 오백 냥을 받았으면서도 遠族이 方伯임을 빙자하여 10여년 후에 다시 찾아와 侵奪하려 하자, 朴亮漢이 그를 잡아다가 重罰로 다스리고 다른 곳으로 추방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贖良價를 가볍게 받고 노비를 관대하게 해방시켜 준 주인의 이야기와 노비에게 불법으로 再贖을 자행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자를 긍정하고 후자를 비판하고 있다. <余嘗見人推得遶方>도 주인이 노비를 관대하게 贖良해준 삽화와 부유한 노비에게 非理推奴를 자행하는 삽화를 함께 보여준다. 《박소촌화》의 편자는 두 삽화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전자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과도한 贖良價를 요구하는 豪強兩班의 탐욕은 징계되어야 마땅하고 정당한 贖良價를 치른 노비의 신분상승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보다 진전된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宋班窮途遇舊僕>³¹⁾은 도망노비 막동의 신분해방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宋生의 先代 노복이었던 莫同은 상전대이 몰락하자 “결단코 남의 종노릇하는 천한 신세로 늙지 않으리라”고 맹세하고 도망을 감행한다. 그는 당대의 문벌이면서 후손이 없던 최씨 성을 冒稱하여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번 다음 영평, 철원, 회양, 고성 등의 변방으로 옮겨다니며 산다. 이는 물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나아가 그는 글을 읽어 양반의 행실을 익히고 유명한 양반들의 성함을 冒稱한 서울의 한량들을 내왕케 하여 마침내 향리 사람들로부터 士族으로 대접받게 된다. 이미 경제적·신

31) <宋班窮途遇舊僕>은 《청구야담》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본적 처지가 향상된 莫同에 대해 주인 宋生은 그의 신분상승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宋生의 從弟는 형의 그런 처사를 원망하며 莫同을 다스려 말세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莫同에게 잡혀 곤욕만 치르다가 끝내 그의 신분상승을 인정하고 그 代價로 많은 돈을 받아왔으니, 이는 일종의 돈과 신분의 타협인 셈이다. 그런데 그 타협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열세와 노비의 우세라는 처지의 역전에 입각한 것이기에, 화해의 성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노비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宋生과 그의 동생이 끝내 莫同의 신분상승을 인정한 것은 주인이 施惠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노비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해야 옳다.

이처럼 <宋班窮途遇舊僕>은 '주인과 노비가 어떻게 화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다. 노비들은 이미 향촌사회에서 富를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이루고 관직에까지 올라 상당한 勢力家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비들의 위세에 놀려 그들에게 굴복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후기 노비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 및 그 구체적 실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노비담 중에서 노비의 신분상승을 위한 집념과 그 성취과정을 <宋班窮途遇舊僕>만큼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2.3. 공존형, 관념적 시각과 경험적 시각의 접점

공존형은 한 이야기 속에 忠奴와 逆奴를 함께 설정하여 이들의 행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 忠奴는 모범적인 노비의 사례로 긍정되는 반면 逆奴는 철저히 부정되고 비판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원래 충노형과 역노형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며 독자적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때때로 이 둘의 錯綜에 의해 공존형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老幸下軛禮舊主>³²⁾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32) 이 작품은 《동야취집》에 수록되어 있다.

- ① 남산 아래에 사는 申生에게 어느 날 화려하게 차려입은 네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申生의 노비로서 贖良을 위해 온 것이고 그 값으로 일인당 천 냥씩을 내겠다고 했으나 탐욕 많은 申生은 만 냥을 내지 않으면 결코 贖良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사흘 후 그들이 다시 와서 贖良을 간청했지만, 申生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문밖에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청년들을 불러 申生을 결박한 뒤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달아났다.³³⁾
- ② 반석평은 원래 어느 재상댁 노비의 아들이었는데, 재상의 도움으로 숨어서 공부한 결과 과거에 급제하고 지위가 높아졌다. 그 때문에 반석평은 재상이 죽은 뒤에도 그의 子姪들을 만날 때마다 가마에서 내려 절을 올리며 예를 극진히 했다. 그 후에 潘公은 조정에서 자기의 근본을 밝히는 表文을 올리고 사탈관직을 청했는데, 조정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고 재상의 자식에게도 벼슬을 주었다.³⁴⁾

이처럼 <老宰下轄禮舊主>는 逆奴와 忠奴에 관한 두 삽화를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①의 경우 주인 申生의 탐욕이 노비의 반역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주인의 온당치 못한 처사가 비판되고 있으며,³⁵⁾ ②의 경우 재상의 배려로 노비신분을 속이고 입신하게 된 반석평이 그 보답으로 재상의 子姪들을 의리로써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동야취집>의 편자는 이처럼 대조되는 두 삽화를 통해 좋은 주인 밑에서 忠奴가 나오고 악한 주인 밑에서 逆奴가 나온다는 논리를 통해, 忠奴가 되느냐 逆奴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오로지 노비에 대한 주인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이야기 끝에는 申生의 노비가 潘頤杵의 의로운 행위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주인집에 贖良價 오천 냥을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³⁶⁾ 이는 당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써 <동야취집> 편자의 보수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주노갈등이 노비의 일방적인 시해로 해결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식을 통해 사대부의 관념적 인식보다 노비의 경험적 인식이 역사발전 단계에 상

33) 정명기 편, 『원본 동야취집』 하, 보고사, 1992, 192~193쪽.

34) 정명기 편, 앞의 책, 193~194쪽.

35) 정명기 편, 앞의 책, 194쪽.

36) 정명기, 앞의 책, 194~195쪽.

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老宰下輶禮舊主>는 그 두 인식의 접점에서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대부의 관념논리로 얼버무리고 만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현실공간에서 노비의 신분해방을 둘러싸고 빚어진 主-奴의 대립과 충돌이 때로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기도 했을 터, 이 작품은 조선후기의 그와 같은 사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復讐說>, <有窮士推叛奴>, <京中士人沈姓者> 등은³⁷⁾ 推奴에 얽힌 이야기로서, 가난한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갔다가 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叛奴 딸의 변장을 통한 대리 죽음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 官의 도움으로 叛奴들을 처단하고 叛奴의 딸에게는 旌門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을 구한 반노 딸의 행위는 주인을 위한 忠, 부모를 위한 孝, 남편을 위한 烈로 간주되어 널리 宣揚되고 있지만, 그 상황설정 자체는 우연성을 면치 못한다. 이 역시 신분질서의 혼란을 원치 않던 사대부의 관념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인은 원래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奴婢推刷를 단행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 같은 推奴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忠奴에 대한 보상과 叛奴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무너져 가는 신분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대부들의 소망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노비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현실과 어긋난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복수설>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갈등을 2대에 걸쳐 형상화한 작품으로, 노비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원수를 그 아들이 대신 갚는다는 복수플롯을 보인다. 이 작품은 소재상의 특이성 때문에 소설로도 이행되어 <김학공전>, <신계후전>, <살신성인>, <탄금대>, <삼강문> 등과 같은 작품을 낳기도 하였다.³⁸⁾

<老媪慮患納小室>³⁹⁾은 주인과 노비의 결합을 통해 主-奴의 신분갈등이 해결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은 家勢가 몰락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운

37) <復讐說>은 이광정의 <訥隱集>에, <有窮士推叛奴>는 안석경의 <삼교만록>에, <京中士人沈姓者>는 신돈복의 <학산한언>에 수록되어 있다.

38) 鄭俊植, 推奴系 敘事文學의 展開樣相과 社會的 意味, 釜山大 博士論文, 35~75쪽.

39) 이 작품은 <청구야담>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처지에서 “推奴를 나가면 한 재산 얻으리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노비들을 찾아 갔다가 그들에게 피살될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그를 물고 어느 큰 마을의 우물가에 물어다 놓았는데, 우물 옆집의 할멈이 옛 상전택의 손자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감으로써 피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할멈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상전을 소개하고 奴主之分을 지키며 상전을 극진히 모시게 했다. 그런데 할멈의 아들들은 모두 전장하고 특출할 뿐더러 재산도 많아서 그 고을을 호령하고 지내는 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에게 느닷없이 거지같은 사람이 나타나 상전이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못마땅해 하며 상전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할멈이 그런 기미를 알고 자기 손녀를 상전과 혼인 시킴으로써 그 갈등을 화해로 이끌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우연성이 더욱 남발되면서 피살 위기에 처한 주인이 두 번씩이나 구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 또한 忠奴와 叛奴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만, 앞의 작품들과 달리 叛奴에 대한 처벌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인이 노비의 일방적인 施惠에 의해 두 번이나 목숨을 부지했으며, 노비로부터 매년 재물을 받아 요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결말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적 처지에서 주인과 노비의 역전된 관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바, 조선후기 노비의 신분해방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근래에 이르러 야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연구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한 수준을 보인다. 그 방향을 보면 대체로 야담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인식, 후대 야담집이 전대문헌을 수용한 양상, 새로운 자료의 발굴·소개, 야담 편자를 확인하는 작업, 유형별 작품론, 야담의 구성원리를 밝히려는 시도, 자료의 계통별 정리 와 번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담 연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야기 유형들에 대한 작품론

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고는 야담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는 노비담의 실상과 의미를 규명하려는 목적 하에, 일차적으로 '주노관계형'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하위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드러난 노비의 형상과 그 의미를 밝혀보려는 시도였다. 이 하 본론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는다.

노비담은 노비가 주인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主奴關係型'과 '奴婢單獨型'으로 나뉜다. '주노관계형'은 다시 주인에 대한 노비의 태도와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忠奴型', '逆奴型', '共存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충노형'은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고, '역노형'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한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며, '공존형'은 한 작품 안에 忠奴와 逆奴를 함께 설정하여 이들의 행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忠奴型의 경우,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와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노비를 설정하여 주인을 위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이런 모범적인 노비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바람직한 노비를 갈망하는 그들의 기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현실에서 주인을 위해 일신을 아끼지 않고 충을 실천한 노비가 얼마나 드물었던가를 역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주인을 의리로서 섬긴 이야기와 주인을 경제적으로 도운 이야기는 노비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그들의 주체적이고도 당당한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주인을 경제적으로 도운 이야기는 도망노비가 주인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분적 한계마저 극복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할 만하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사대부적 계급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노비가 자아의 각성을 통해 신분해방을 이루어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역노형은 노비담의 하위 유형 중 가장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인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노비의 신분해방을 위한 저항에서 비롯된 主-奴의 첨예한 대립·갈등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이 勇力談, 機智談, 報恩談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애초에 제기된 문제의 본질이 은폐·호도되고 있다. 역노형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노비의 신분해방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하면서

도 그것의 성취보다는 좌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余嘗見人推得遐方>, <柏谷金公>, <宋班窮途遇舊僕>은 역노형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余嘗見人推得遐方>, <柏谷金公>은 노비를 대상으로 再贖 또는 非理推奴를 자행하는 주인의 탐욕을 징계하는 한편, 정당한 贖良價를 치른 노비의 신분상승은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宋班窮途遇舊僕>은 노비의 신분해방을 위한 집념과 그 성취과정을 현실적 맥락 위에서 탁월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요컨대 이들 작품은 노비의 신분해방을 위한 열망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장차 도래하게 될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형의 경우, 贖良이나 推刷를 둘러싸고 주인과 노비가 대결하는 상황에서 주인에게 대항하여 신분상승을 이루려던 逆奴와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忠奴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가 부정되고 후자가 긍정되는 서사세계를 애써 구축하고 있지만, 이는 신분질서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대부들의 소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의 행위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하는 노비의 행위는 사대부의 관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인바, 주인의 위기 모면이 설화적 우연성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主奴葛藤이 주인과 노비의 타협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타협이 노비의 일방적인 施惠에 의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주인과 노비의 역전된 관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바, 조선후기 노비의 신분해방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표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주인, 노비, 주노갈등, 주노관계, 노비담, 신분해방, 충노형, 역노형, 공존형

참고문헌

- 김석배, 『추노계 한문단편 연구』, 『문학과 언어』 제7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 김정석,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분대립 고찰』, 『계명어문학』 제5집, 계명어문학회, 1990.
- 김현룡, 『한국문헌실화』 제2~4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1999.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실화전집』 7, 태학사, 1987.
- 역사학회 편, 『노비·농노·노예』, 일조각, 1998.
- 이광정, 『늘은집』, 계명문화사, 1992.
- 이종묵, 『남하정의 <임석동전>과 충노전의 전통』,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하)』, 집문당, 1998.
-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 정명기, 『奴-主의 어울림과 맞섬』,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학회, 1982.
- , 『원본 동아휘집(하)』, 보고서, 1992.
- , 『한국야담자료집성』 12, 보고서, 1987.
- 정석종,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초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세종출판사, 1995.
- ,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 박사논문, 1998.
- ,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 평목실,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1982.

<Abstract>

The style and meaning of slavery story in the relation between owner and slave

Jung, Jun-Si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styles and meanings of slavery stories in literature history. First, the relation between owner and slave is debated. Then it divides it with the lower forms and tries to find out the styles and meanings of slaves which were shown in each form.

The slavery story in literature history is divided into two Types, "the relation between owner and slave" and "only slave". The type of the relation between owner and slave is classified with "Chung No type(忠奴型)", "Yuk No type(逆奴型)", and "Kong Jon type(共存型)". "Chung No type" is the story that the slave serves the owner with fidelity. "Yuk No type" shows us the story that the slave betrays and resists his owner. "Pok Hap type" is the contrastive story that shows both of two types together in only one work.

In a case of Chung No style(忠奴型), there are the stories that the slave rescues his owner in a big danger and revenges himself on his owner's opponent. These stories shows their blind loyalty recklessly. Therefore, we can find out that there were few slaves that had served his owner with earnestness in their daily life in Chosun Dynasty. The two stories which served his owner wholeheartedly and helped financially described the slaves' independent and stately life positively by maximizing their abilities.

Yuk No style(逆奴型) had the most various work worlds among the lower types of slavery stories. This style basically shows the perfect conflicts between both of them caused by resistance for their liberation. But in the

later part it changes into a variety of shapes and the essence of problem becomes unclear. This is the reason why the works of Yuk No style can't help describing the desperation in spite of trying to express the eagerness toward liberation. But a few works among Chung No stories reveals their ardent desire toward their liberation and expresses the achievement strongly. In this effort, they are expecting the world without differences of social standings in the future.

In a case of Kong Jon style(共存型), there's a situation that the owner fight with his slave, in which the slave who resists toward his owner and tries to go up his social standing is a contrast to the one who rescues his owner in a danger. In this kind of works, seemingly, the conflict between the owner and his slave ends up with compromise between them. But apparently this compromise is achieved by the slave's one-way benefit. Through this background, we can make it clear that the roles between the owner and slave are reversed.